

작품 내용

제 목	진짜 상
내 용	미술시간.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걸 ‘안개처럼 사라진다’ 는 뜻으로...” “딩동댕-동-” 하준이는 얼마전에 입학한 평범한 중학교1학년 학생이다. 남들 눈에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상이지만, 공부는 싫어하고, 게임은 좋아한다. 친구들과 사이에선 꽤 게임을 잘 하기도 한다. “애들아 다음 교시 잘 준비하고, 아 너희 다음주까지 미술 수행평가 그러서 준 링크에 올리면 돼. 주제는 자유니까 그리고 싶은거 잘 그려보고. 열심히 해봐.” 미술 수행평가라니. 절망적이었다. 하준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 만 받았다.물론 부끄러워서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보여 주지는 않았다. 그런기에 하준이 그림을 그린다면 누가 보아도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렸다고 보일 것이다. ‘하...어떡하지...’ 하준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에이 나중에 생각하자 ‘ 그날 이후, 하준이의 반을 포함한 1학년 전체에서는 미술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번에 수행때 잘 그리면 잘한 사람 뽑아서 수상도 한테. 상금도 크다더라.” ‘에휴 그런 거 나는 관심도 없다. 아 오늘 급식 떡볶이라고 했는데.’ 하준이는 그저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그렸냐고 혼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미술 수행평가보다는 매콤달콤 떡볶이가 중요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종례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오늘 청소는 현우랑 지아고, 너네 내일 미술 수행 제출이라며? 좋은 결과 바라고, 미술 선생님이 너무 못하면 방과 후에 남긴다고 하셨으니까.” 몇몇 아이들이 피식 웃었다. “진짜야. 남겨서 다시 그림 그린다고 하셨어.” 물론 다른 아이들은 어느정도 미술을 해서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하준이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다. 이번에도 분명 그림을 망칠 것이고, 방과 후에 남게 될것이다. 집에 가면 엄마는 왜 늦게왔냐고 물어볼 것이 뻔하다. 다음순서는 당연히 혼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숙제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까먹어 하루만에 그려야 한다. 남은 시간 단 하루.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왜그래? 무슨일 있어?” “아니야...”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이젠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하준이에겐 그렇다.

“일단 그릴 것 부터 정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하준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자신이 좋아하고, 잘 아는 음식인 떡볶이를 그리기로 했다. 도화지를 가져와 그리기를 시작했다.

“일단 삶은 달걀을 그리고...” “끼익!”

마커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갔다. 가뜰이나 시간도 늦었는데.누굴 닮아서 나는 미술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때 하준의 머릿속 전구가 켜졌다. 이번 수행평가는 입학 후 첫 미술 수행평가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모두 다른 반이다. 고로 내 미술 실력을 아는 사람은 없다.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하자.바로 초록 검색창에 ‘떡볶이 그림’을 검색했다.

‘오 이사람 엄청 잘 그렸다.’

하준이는 ‘역시 나보다 못그리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찾아 링크에 업로드했다. 조금 찻찻하긴 했지만, 그냥 하기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학교.

“아 하준이는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와”

“네?네...”

무엇때문일까. 분명 못그렸다고 부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 혹시 인터넷에서 찾은 게 들켰나? ‘설마.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하준이는 두려워하며 교무실로 향했다.

“왔어? 하준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더라고, 그 그림이 수상을 하게 되어서 말이야.” “아...그래요?”

“정말 축하하고, 다음주에 시상하러 가면 돼. 조심히 가.”

“네 안녕히계세요.”

집으로 가는 하준이의 발은 어제보다 배로 무거웠다. 머리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일까,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날 하준이는 잠에 들지 못해 다음날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결국 하준이는 선생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똑똑”

“누구니? 아 하준이구나 왜 왔어?”

“아...선생님 그...저 수행평가 때 올린 그림, 사실 인터넷에 있던 거예요...”

“....”

그 순간 교무실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메두사의 눈을 보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그러나 웬지 모르게 속이 후련했다.

“하...그래. 일단 알았어.”

“...”

이 일로 하준이의 생기부에는 ‘표절’ 이라는단어가 생기겠지만, 엄마에게 매우 혼이날 것이 분명하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교실로 돌아왔다. 하준이의 마음에는 미소가 띄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보다도 더 값진 미소였다.하준이는 개운한 발걸음으로 교무실을 나섰다. 다시는 표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날따라 햇빛은 쨍쨍하고, 바람은 시원했다.